

제10호·2016년 4월 6일

미래전략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실장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이슈

극동개발부 장관이 바라본 러-중 물류협력 방안

극동러시아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및 현황

- 연해주의 국제물류회랑 개발 정책(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90년대부터 중국 동북지역 물동량을 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항으로 유치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음
- 극동지역이 동북3성의 물동량을 해상 운송할 수 있는 관문이라는 지리적인 잠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항만을 연계한 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
- 이 루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화주와 물류기업에게 편리함과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다 할 편리 및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 및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한 가지 예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무단장에서 상하이까지 운송할 때 중국 다롄항을 이용하면 운항시간 85시간, 운송비용 1,185 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면 운항시간은 다롄항 대비 1/3로 단축이 가능
 - 하지만 운송시간은 최소 220시간이 더 소요되며 운송비용은 5-15% 증가함
- 주로 운송 지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느린 통관절차를 들 수 있으며 통관에만 최소 100 시간이 소요됨
 - 화물운송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러시아 항만을 이용할 때 화주 및 물류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임

러-중 물류 협력의 가능성과 의미

-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지역내총생산이 약 1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1조 달러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극동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들의 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이며 매우 중요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그 잠재력 중 하나로 연해주 러시아의 주요 항만 물동량이 2015년 대비 약 1.5배가 증



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연해주의 국제물류회랑개발이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실질적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 러시아와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

러-중 물류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극동개발부는 국제물류회랑의 재정-경제 모델을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Mckinsey)사를 통해 구축함
- 국제물류회랑 개발에 대형 컨설턴트사가 참여하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활용을 기대하였음
- 극동개발부가 내놓은 비즈니스 모델은 컨테이너와 곡물류 화물을 연해주 항만으로 유치하여 물량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임
- 러시아가 물동량을 유치하려는 지역으로 동북3성을 중심으로 북쪽은 다싱안리, 서쪽은 바이청 남쪽은 통화까지 적용함

자루비노항연계 운송루트 비즈니스 모델(곡물)

곡물: 다렌항 대비 자루비노항 이용 모델



자료: 극동개발부, KMI 재구성



-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항만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동북3성의 화물은 45백만 톤으로 총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분량임
 - 450억 톤 중 22백만 톤은 컨테이너 화물이고 23백만 톤은 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류가 주요 화물임
- 아래 그림에 따르면 나호트카항을 무단장과 자무쓰와 연결하거나 자루비노항을 하얼빈과 장춘으로 연결하는 루트를 구축해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적인 루트가 구축된 것은 아니며 관세비용과 화물통관 절차 개선에 따라 경제적인 신 루트가 구체적으로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자루비노항연계 운송루트 비즈니스 모델(컨테이너)

컨테이너: 다렌항 대비 자루비노항 이용 모델



자료: 극동개발부, KMI 재구성



- 연해주에서 국제물류회랑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하게 됨
 - 자유항법안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자유항 입주자들을 위해 24시간 통관운영체제 'One Window', 화물의 사전전자신고, 해외참여자들의 활동을 위한 통관자유지대가 운영 될 것임
 -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운영은 러-중 간 화물운송에 행정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
- 또한 자유항법과 더불어 훈춘-자루비노 간 중국철도 궤도에 맞춘 철도건설과 러-중 국경과 연해주 항만을 잇는 철도라인 건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까지 프리모리에-1 개발을 통해 나호트카 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7백만 톤을 처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음
 -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세관을 늘리고, 러-중 국경에 위치한 그로데코보 역의 현대화, 우수리스크에서 러-중 국경까지 도로 재건설 등이 필요하여 약 100억 루블 투자 규모의 공사가 올해부터 착수될 예정임
- 프리모리에-2 구간은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며 인프라 건설을 위해 1,700억 루블의 투자액이 필요함
 - 이 구간을 통해서는 약 38백만 톤까지 화물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러-중 간 물류협력에 따른 기대효과

- 동북3성 지역의 물류흐름에 대한 국제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물류회랑 개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양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입장에서는 GDP가 290억 루블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과 연간 57억 루블의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 최소 3천개, 인프라 분야에 최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함
 -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지역 화주기업의 물류비가 연간 약 10억 달러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다른 지방과의 경제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자료: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100(검색일: 2016년 4월 1일)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물류동향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총 29개 투자기업 선정

- 지난 3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하 자유항) 감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9번째 자유항 투자 기업이 선정됨
 - 이번 기업이 선정되면서 자유항에 투입되는 투자금액은 총 850억 루블로 약 3,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됨
- 지금까지 자유항 내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29개 업체는 각각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임
 - 이에 따라 극동개발부는 자유항 제도 내 신규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연해주 내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총 29개 프로젝트 중에서 극동개발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광물을 수출하기 위한 석탄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임
 - 현재까지 극동개발공사¹⁾는 54개 업체에게 제안서를 받았으며, 향후 자유항 내에서 약 5,2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기업

단위 : 명, 백만 루블

구분	기업명	프로젝트	고용인	투자액
1	ООО «Новый угольный терминал»	석탄터미널 설립	462	64,948
2	ОАО «Находкинский морской рыбный порт»	나호드카 어항 현대화	250	3,948
3	ОО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рской перегрузочный терминал»	연해주 슬라반카 환적복합 터미널 건설	649	9,563
4	ООО «Хорал ДВ»	수산업 관련 기업 설립	250	1,592
5	ООО «Транслайн»	연해주 여객버스공장 건설	155	1,067
6	ООО «Агросервис»	1) 연간 21,000톤급 LNG공장 건설 2) 천연가스를 이용한 온실 복합단지 건설	1) 24 2) 26	1) 794 2) 29
7	ООО «Мега»	물류단지 A 건설	150	717
8	ООО «СиЛайф»	양식업 및 가공제품	45	608

1) 극동개발공사의 러시아어 명칭은 다음과 같음,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9	ООО «о. Русский»	자유항 내 해양관광 개발	118	418
10	ООО «Зима Южная»	나제진스카야 주거지역 건설	250	400
11	ООО «Транспортн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냉동·냉장제품 물류서비스 제공	36	253
12	ООО «СоюзГаз»	철송용 LPG 탱크제작을 위한 나호트카 산업터미널 건설	65	210
13	ООО «ДКП Логистик»	6,000m ² 의 냉동·냉장창고 및 일반 창고 건설	33	180
14	ООО «Тим-групп лоджистик»	2,500m ² 규모의 ATLANT사 신규 산업공장 설립	22	77
15	ООО «Рус ФУД»	한카지역 농업단지 조성	40	82
16	ООО «ДэлКар»	4,777m ² 규모의 복합창고 A 설립	30	80
17	ООО «ВЛЗ»	현대화된 엘리베이터 제조	47	77
18	ООО «Рассветь»	콘크리트 평판 생산, 저장 등을 위한 복합단지 건설	30	55
19	ООО «Композитное кораблестроение»	자유항 지역 내 민간선박 현대화	67	36
20	ООО «Галф Восток»	리퍼컨테이너 수리 및 제작	19	26
21	ООО «Тайгер Микс»	건축자재 생산	17	25
22	ООО «ЭКО ПАК»	바이오·친환경적인 폴리에틸렌 봉지 생산 및 창고 건설	7	21
23	ООО «КФ Система»	아르츰 지역 내 스크랩 등을 위한 야적장 건설	37	20
24	ООО «Лидер»	복합 저장창고 시설 설립	7	18
25	АО «Порто-Франко»	친환경 교통을 이용한 여객수송	91	16
26	ИП Суш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모노휠, 세그웨이 등의 친환경 자동차 서비스 센터 설립	15	14
27	ООО «Корпорация Прим Хуньчунь»	수산물 및 야채 저장·가공을 위한 복합단지 설립	50	10
28	ПАО «Славянский СРЗ»	사무단지 재건	50	8
29	ОО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설탕, 시리얼 등과 같은 연해주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요 소비재 생산	12	7

주 : 합작회사(AO), 개방형 주식회사(OAO), 폐쇄형 주식회사(ЗАО), 유한책임회사(ООО), 공공 합작회사(ПАО)
 자료 :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106(검색일 : 2016년 3월 29일)

자료: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106(검색일: 2016년 3월 29일)

김은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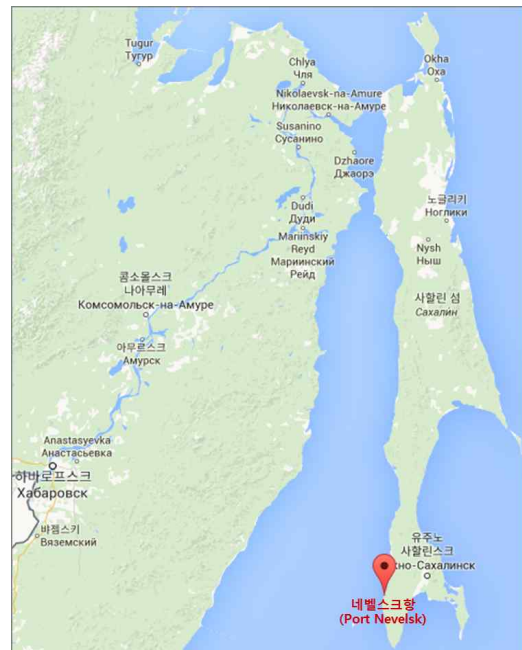
051-797-4778, usea1004@kmi.re.kr



사할린주 네벨스크항에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 예정

- 극동러시아 사할린주 네벨스크항에 신규 화물터미널이 들어서 2020년부터 운영될 예정임
 - 새로운 화물터미널은 네벨스크항 주변의 확장 예정부지에 건설될 것이며, 총 50억 루블²⁾이 투자됨
- 이번 사업은 네벨스크항에 석탄화물을 공급하는 러시아 고르냐크-1사(ООО «Горняк-1»)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 및 건축한 뒤, 이를 고르냐크-1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 고르냐크-1사는 본 사업에 6억 루블³⁾을 투자함
- 고르냐크-1사는 러시아의 석탄광산 개발회사로, 2015년 석탄 36만 7천 톤을 네벨스크항을 통해 처리함
 - 네벨스크항 화물터미널 건설 이후에는 석탄 약 100만 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함
-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화물운송량에 대비해, 신설 화물터미널에 첨단 물류설비를 갖추고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것을 기대함
 - 또한, 본 사업으로 향후 네벨스크항의 수출입 석탄화물 처리량은 연간 약 25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네벨스크항 위치



자료: 구글 지도, 필자 재구성(검색일: 2016년 4월 14일)

자료: <http://www.gudok.ru/infrastructure/?ID=1331202>(검색일: 2016년 3월 28일)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

2) 한화 849억 원, 2016년 4월 4일 환율기준, 1RUB = 16.98원, 하나은행, www.hanabank.com (검색일: 2016년 4월 4일)

3) 한화 100억 1,400만 원, 2016년 4월 4일 환율기준, 1RUB = 16.98원, 하나은행, www.hanabank.com (검색일: 2016년 4월 4일)